

기관 돋보기 | 청주해오름마을

‘한부모가족의 자립 플랫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 무상 제공, 전문 상담,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캠프, 각종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시설이었다.

청주시 월동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산하 청주해오름마을(원장 배성희)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로 2011년에 설립되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약 15평형 주택을 3년에서 5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전한 양육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 프로그램과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청주해오름마을 직원들의 모습.

학업중단 위기 학생미혼모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 충북도내 최우수기관

특히, 2019년 3월부터 학생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미혼모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충북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주해오름마을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2011년에 설립되어 한부모가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건전한 양육환경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자립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충청북도교육지원청의 학생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미혼모(임산부)에게 학생미혼모에게 원격교 복귀 및 학업 지속화를 위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해오름마을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3년

에서 5년까지 15평형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자립 이전까지의 경제적 및 돌봄 등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입소인원은 16세대 44명(모 16명, 자 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인 등 종사자 5명이 함께 생활하며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자립 기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해오름마을은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 개인별 또는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상담치료지원사업으로 개인, 가족, 집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상담과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상담, 집

단상담 등은 수시로 시설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중 입소 후 1년 간 개인, 가족, 집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상담서비스와 상담치료를 지원하며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연계, 부모 및 양육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고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학공부방,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교육, 체험학습 등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 및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가족공동체 강화를 위한 가

족캠프, 각종 문화체험, 사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며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입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후원품 및 아동결연 후원금연계,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고 있다.

배성희 원장은 “올해 4월 우리 입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능탐색 프로그램인 ‘해오름 앙상블’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합주 연습을 통해 지난 12월 2일 개월 11주년 기념행사 시 현악 앙상블과 합주무대를 갖게 되어 우리 아이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시설은 청주시 외곽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학과 통근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설 규모에 비해 적은 종사자 수로 운영·관리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소 현원에 따라 연간 운영비가 책정되고 있지만, 책정되는 운영비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어려워 많은 부분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 및 봉사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해오름마을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한부모가족들의 자립 능력과 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어 미래 사회의 리더로서 가족들의 성장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원동력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직원들 또한, 입소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품속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충북도, 전국 최초 의료비 후불제 추진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완료 등

충북도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올해 사업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장 착한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이다.

충북도는 올해 6월부터 도내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학계·민간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실시해 사업대상, 대상질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필수 사전절차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를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안)’ 및 ‘의료비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이 6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를 마쳤다.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자, 장애인에 대상으로 다빈도·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용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원을 활용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청수요가 재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해액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은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와 치과 병의원 61개소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4년 이후에는 사업대상 및 대상질환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예결위 심의 후 오는 12월 말에 농협 충북본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일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

올해 목표 81억 3000만원...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릴레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 이하 충북모금회)는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시작한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충북’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릴레이를 이어간다.

모두가 나눔에 동참해 그 나눔이 선순환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목표액은 81억3000만원으로, 전년 모금액 89억3900만원의 90.9%다.

캠페인 기간 8130만원이 모일 때마다 상당공원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간다.

충북모금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서 나눔캠페인을 펼쳤다.

6일부터 14일까지 시·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현장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기부 희망자는 충북모금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랑의 계좌, 방송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노영수 회장은 “최근 발생한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민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며 “각계각층에서 나눔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청주시 월동동에 위치한 청주해오름마을 전경.



지난 2일 '개월 11주년 기념·가족축제 행사'에서 청주해오름마을 입소 가족들이 합창공연을 하고 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진천군,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사회적 약자에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진천군이 전국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케어팜(carefarm)은 돌봄(care)과 농장(farm)의 합성어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방식으로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돌봄 모델이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에서 돌봄이 아니라 케어팜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고,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케어팜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케어팜의 기능, 생거진천 케어팜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경비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실내 돌봄이 아니라 케어팜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고 산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 케어팜은 돌봄의 질 향상과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기대를 받고 있다"라며 "전국 최초 케어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틀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케어팜 사업의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 케어팜은 돌봄의 질 향상과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기대를 받고 있다"라며 "전국 최초 케어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틀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케어팜 사업의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이 2022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최경화(오른쪽) 노인복지팀장이 참석해 수상했다.

음성군 '노인일자리 우수지자체' 선정

시니어클럽관장도 복지부장관상 수상

음성군은 올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전국 190여 개의 시니어클럽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자체와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전국 노인일자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군은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분야 적극행정 추진을 인정받아 6개 지자체와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김경섭 음성시니어클럽관장이 우수종사자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

입해 모두 25개 사업을 진행해 3249명에게 정부형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유관기관 협약 등 민간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으로 3년연속 선정(2022년 최우수 선정)돼 충청북도 내 민간형 노인일자리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천군,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핀다

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 본격 운영

진천군은 지역 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생거진천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생거진천 안부확인서비스는 등

록된 유·무선전화에 일정기간 통화기록이 없을 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동 안부콜(ARS)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동 안부콜(ARS)에도 미응답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당자에게 실시간으로 확인요청 알람이 통보되고 담당자는 바로 방문해 이용자의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와 협력해 대상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고독사 예방과 관리 시범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실시된 '진천군 고독사위험군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487명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사회적 고립, 질병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실질적 1인 가구이며 노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 청년까지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군에서 지원한다.



6일 열린 제천시 수상한 청춘학교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제천시 실버문화복합공간 '수상한 청춘학교' 개관

남부면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삶의 질 향상

제천시는 6일 덕산면 일원에서 실버문화복합공간 '수상한 청춘학교'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규 제천시

장과 이정민 시장의, 남부면 노인회 분회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했다.

수상한 청춘 학교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지사장 이동범)가 후원하고 제천시의 파란 사회서비스센터(대표 서건성)가 위탁 운영하는 실버문화복합 공간으로 남부지역(수산·덕산·한수면) 어르신의 복지와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70세 이상은 종일반(오전 10시~오후 4시30분), 만 65세 이상은 반일반(오전 10시~오후 2시)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며 이 지역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은 별도 없다. 신청은 수상한 청춘 학교(043-644-0889)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의료원 도내 최초 장애친화 검진기관 선정

장애인 건강검진 시설 개선·장비 도입 내년부터 이용 가능

청주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검진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장애인 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충북도에서는 최초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충북도는 '20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지정에 이어 3년 연속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비 57백만원과 도비 5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 체중계, 여성암 자궁초음파 기기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병원 측에는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관리비 37,770원이 보험 공단에서 추가 지급된다.

도와 청주의료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전담직원 교육 및 전직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내에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돕는 전담인력과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시 동행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청주의료원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1개소 이상 선정돼 장애인들에게 건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맞춤형 복지실현' 예산안 1조3013억원 편성

장애인 바우처 택시·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등 반영

충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3013억원(일반회계 1조89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규모로 편성에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멋과 흥이 넘치는 도시 조성'과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76억원(4.6%)이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각 분야별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 시는 '멋과 흥이 넘치는 문

화·관광·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숲 조성, 도시 바람숲길, 미세먼지 차단숲,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민물생태 체험관, 국립박물관 기반 조성, 탐금호 피크닉 공원 등 녹색 휴식공간과 문화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삶의 질이 높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골목장 조성,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보수,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성인 무료 대상포진, HVP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미래투자'를 위해 동충주산단 조성, XR실증단지 구축,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도시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고교생 해외연수, 비월체이 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입영지원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등도 지원한다. 특히, 내년도 복지예산 국비 지원 삭감으로 인한 감소가 예상됐던 노인일자리사업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취약계층 소득감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청주시 의료급여사업, 사각지대 없앤다

건강생활유지비·본인부담금 보상금·현금급여 등 지원

청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등의 현금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 원이 지원된다.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 공단 가상계좌에 매달 1일 생성되는 제도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관할 읍·면·동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충북 도내 첫 '청년수당' 추진

주소 이전 도립대 학생 120만원 축하금도 지원

옥천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년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지원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청년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충북 시·군 가운데 옥천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수당으로 24세를 맞는 청년에게 100만 원

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과 같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논산시, 청양군 등 일부에서 운용하고 있다. 군은 이 수당 도입을 위해 군의회,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3~4월 제1회 추가경정예

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부터 도립대 학생이 옥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120만원의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옥천 전입 도립대 학생에게 연간 10만원을 지원했던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모든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20만원의 축하금도 도립대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도립대 학생은 800여명이다.

이 대학은 생활관을 짓고 있어 내년에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가운데 절반의 학생이 기숙사로 주소를 옮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활기찬 옥천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청년지원 수당 도입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청소년들과 가족,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4회 청·바·지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괴산군, '청·바·지 토크 콘서트' 성료

청소년 다양한 목소리 청취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유현)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4회 괴산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보는 지금) 토크 콘서트를 9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괴산군 내 초·중·고등학교생·학부모,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번 토크콘서트는 청소년의 소리를 듣기 위한 청소년행사로 2017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 홍보전문가로 유명한 서경덕 교수의 용기, 도전정신을 글로벌 리더를 주제로 한 강연, 1회부터 4회까지 이어온 청소년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주제로 한 김두환 대표의 강연, 청소년이 바라봐야 하는 통일을 주제로 통일전문 심수연 강사의 강연에 이어 청소년 밴드, 댄스 공연,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만에 개최한 청소년 행사로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특히 괴산군 내 청소년이 벨리댄스, 밴드 공연 등 공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갈고닦은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기회도 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기획한 유현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지역청소년과 늘 동행하고 단 한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영동부용 고흥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MOU

단지 내 시설 활용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정영철 영동군수(오른쪽)와 김응태 LH 충북지역본부장이 영동부용 고흥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동군이 7일 영동부용 고흥자복지주택 건물 완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인계 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268억원 중 주택 건립비는 LH가 부담하고 영동군에서는 부지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조성비, 제반비용 등 16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돼 올 해 말 최종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는 100평 규모의 목욕탕을 비롯해 경로당, 경로식당, 다목적공간 등

의 사회복지시설이 1500㎡ 규모로 배치됐다. 입주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위생여건 개선과 노인일자리,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고흥화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지역의 종합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부용 고흥자복지주택은 2019년 4월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동을 부용리 85번지 일원에 사업비 268억원을 들여 영구임대주택(39㎡) 168호와 국민임대주택(56㎡) 40세대로 조성됐다.

보은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재추진

보은군이 군 의회와 용지 선정에 관한 이견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다시 나선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군민 맞춤형 복지 공간 '온누리 플랫폼'의 건립 용지를 이르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온누리 플랫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중고생 학습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공간이 들어선다. 9500㎡ 면적에 지상 4층 규모다. 현재 남부 3군 가운데 보은군만 육아지원센터가 없다. 인근 영동군은 지난날 23일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옥천군도 지난해 통합복지센터 2층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를 마련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영유아보육 기반 개선을 위한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용지 선정을 두고 군의회와 의견을 달리해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관해 지역 육아 여성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군은 민선 8기 들어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나섰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187억원도 확보했고, 이 기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용지를 확정하면 내년 초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은군, 다양한 청소년정책 '눈길'

내년부터 '꿈 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보은군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지역 활동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끈다. 군은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권의 증진을 위해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보은지역 청소년 2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군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조언과 각종 사업에 주체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 군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운영

한다. 2023년까지 보은읍 이평리에 125억5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에 청소년 동아리방, 특연과 수련장, 카페,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보은여중생 10명으로 구성된 댄스동아리 '뉴 페이스'는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초대받아 재능을 발휘하고, 보은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민 밴드동아

리 '시즈'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청소년 건전한 문화 형성에 한몫하고 있다. 군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은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영유아와 아동에게 집중된 국가수당 외에 보편적 복지로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세부터 만 18세의 청소년이며, 지원 금액은 나이에 따라 10만~30만 원이다.

영동서 '집다운 집으로' 입주식 개최

어린이재단, 경제 어려운 아동 가정 주택 개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는 12일 영동군 양산면의 한 아동 가정에서 '집다운 집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입주식에는 김진석 영동부

군수, 권순문 양산면장, 후원처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아동 가정의 입주를 축하했다. '집다운 집으로'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선해주는 프로

그램이다. 이번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가정은 노후된 휴집에서 거주하던 조손세대로, 별도의 욕실공간이 없어 부엌 한 칸에서 씻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아동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해 KT&G, 뉴영동라이온스클럽,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다양한 후원처의 도움으로 주거 개축을 완료했다. '집다운 집'을 선물 받은 아동의 할머니는 "아이가 더 이상 걱정 없이 화장실에 가고 편하게 씻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본인이 받은 도움을 배로 갚을 수 있는 어른으로 키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UN아동권리협약 제 27조에 근거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아동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매년 '집다운 집'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증평복지재단-장애인고용공단 '맞손'



증평복지재단은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와 장애인고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복지재단(이사장 이흥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임미화)는 13일 증평복지재

단 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기업의 경쟁력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기업 경쟁력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이흥식 증평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증평복지재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 및 지원사업에 함께 노력하여, 증평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신설·지급된다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시간제 보육 등도 확대 2024년 0세 100만원... 1세 가정양육 5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급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택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괄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 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 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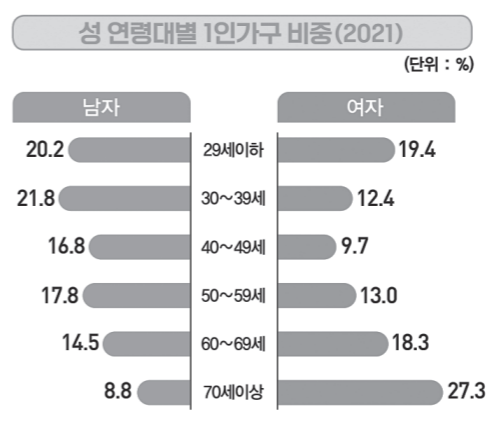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노년층 많은 1인 가구' 적게 벌고 덜 행복하다

1인 가구, 2050년엔 10가구 중 4가구까지 늘어날 전망



1인 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자료 통계청

연령대별 1인 가구는 29세 이하(19.8%), 70세 이상(18.1%)에 많았다. 남성,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30대(21.6%), 70대(27.7%)가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은 직장에 입사해 독립했으나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70대 여성 중 1인 가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사는 사람이

대다수다.

청년, 노년층에 1인 가구가 몰려 있는 건 학업, 취업, 고령화 심화 외에 비혼 문화 확산도 한몫하고 있었다. 올해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가구 비중은 47.1%로 2020년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7%로 집계됐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1인 가구는 68.5%에 달했다. 1인 가구가 가족 형태로 결혼 외에 동거, 사실혼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삶의 질이 다른 가구 형태에 뒤처졌다. 지난해 기준 월세에 사는 1인 가구 비중은 42.3%로 전체 가구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반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34.3%로 전체 가구 대비 23.0%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연소득은 2,691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42.0%에 불과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기업도 참여... "첫 민관 협업"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4개 민간 기업·재단과 함께 민간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행복나래 주식회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 4개 민간 기업 및 재단과 함께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기업 및

재단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은 그동안 민간 기업 및 재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2023년부터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 기업 및 재단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모델 설계 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각 민간 기업 및 재단은 자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호협력 사례가 마련되어 기업 등의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청소년 부모 포함... 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중증 장애인인 아이 등이 있는 가정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

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고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봄보육 양성 교육시 교육 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임금 123만원, 비장애인의 절반"

월 10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47.2%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학계에 따르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의

윤세정 강사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술지 '장애와 고용'에 실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18년 실시한 조사자료에서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한 5243명이 분석 대상이다.

분석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23만5000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272만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근로자 비중이 47.2%로 비장애인 근로자(8.8%)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용 안정성도 열악했다. 장

애인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33.0%로 비장애인 근로자(67.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고용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만족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3.38점(5점 만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3.56점)에 비해 낮았다.

저자는 "임금 격차,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등과 같은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법 토론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아동기본법 제정 앞두고 목소리 듣기 위해 자리 마련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국내 아동단체 6곳과 함께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 권리와 이를 위한 국

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앞두고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에 대한 정의중화이화세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아동단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대표 14명이 다

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송유림·최은민 아동대표는 아동도 환경권의 주체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황승찬·정아윤 아동대표는 아동의 마음 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홍보하고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최새봄·홍지유 아동대표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자체'라며 아동의 놀이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학교에서 '쉽교시'를 만들어 충분히 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아동 자립 준비 정보를 모은 홈페이지 개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 전화 043)234-0840
-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사 등 임명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연명모 원장 등이 지난달 24일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지역 간 격차 해소 기대 11월 24일부터 임기 시작... 행·재정적 적극 지원

충청도는 지난달 24일 연명모 원장을 비롯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이사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

허가 절차가 완료돼 11월 24일 법인 등기 신청을 통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며, 사회서비스원이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명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충북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허브 기능과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연명모 원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8년간의 현장 경험,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질 향상과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충북도에서 설립하는 법인으로, 이번 임명된 원장의 임기는 11월 24일부터 3년,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충북도는 임원의 임명과 정관

2022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 개최

우수 봉사자(단체) 21명·인증요원 11명·관리센터 5곳 표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7일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을 개최해 유공자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해 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해동안 나눔과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에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 우수 자원봉사자(단체) 21명에게 표창장

수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쓴 우수 인증관리요원 11명에게 인증패가 수여됐다.

이어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중 최다 실적 등록 기준으로 뽑힌 5개소를 선정하여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을 증정했다.

이어진 2부 특강은 前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장인 백은경 강사의 '자원봉사 트렌드 및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원봉사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올 한 해 나누는 삶의 실천을 보여주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 계묘년 새해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지역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힐링콘서트로 스트레스 훌훌 날리세요"

충북도·충북사회복지협의회 800여명 사회복지 종사자 초청

충북도의 주최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의 주관으로 8일 CJB미디어센터(에덴아트홀)에서 '2022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만에 800여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번에 개최된 힐링콘서트는 최일선에서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



지난 8일 열린 '2022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힐링콘서트'에 참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뜨거운 열거속에 호응을 하고 있다.

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초청 가수로는 김연자, VOS, 뮤지컬가수 홍지민과 뮤지컬양상블팀 더뮤즈가 참여한 가운데, 개그맨 고

명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VOS의 '큰인이다', 히트곡메들리를 시작으로 홍지민의 'Fly me to the Moon' 등을 비롯한 우리에게 친

숙한 뮤지컬 음악 등을 선보이고,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등의 다수의 공연으로 열거를 뜨겁게 고조시키는 순서로 2시간 동안 무대를 꾸몄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3년여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 대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회장은 "힐링콘서트는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참여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어 3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인 만큼 마음껏 즐기시고, 활력을 얻어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

취약계층에 식품·생활용품 등 지원... "기부문화 확산 노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회장 김영석)는 '2021년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1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던 2021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를 코로나 19 위형 상황이 격상됨에 따라 1년 연기되어, 올해 5~7월에 전국 17개 시·도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푸드뱅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법적 신고기준, 안정성 수준 및 제공실적 등을 평가했다.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법적기준, 운영성과, 사업성과 등 각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95.55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김영석 회장은 "도내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을 수행한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진가가 큰 결실

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 기부업체를 적극 발굴해 푸드뱅크 이용자들에게 연계함으로써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민간사업이다. 현재 충북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은 총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 19,758명에게 13,189,336,000원 상당의 기부식품등을 제공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지난달 22일 봉사단 회원 및 복지관 직원들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00세대 전달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청주시, 한진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11월 22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 행사는 청주시가경동통장단, 디딤돌봉사단, 가경동

새마을부녀회, 청주소상공인대학총동문회 봉사단 회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직접 담근 김치는 홀로 김장을 준비하기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00세대

김현숙 관장은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득 담긴 김치가 어르신들께 전달되어 어느 해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눈 나눔 확산에 도움이 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청주복지재단과 '이웃의 재발견' 사업... 2억5000만원 전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인 '이웃의 재발견'을 위해 청주복지재단에 배분금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인 '이웃의 재

발견'을 위해 청주복지재단(이사장 남미옥)에 배분금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

혔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 및 기존 민간복지기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복지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역보다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까지 지역사회 안전망을 넓힐 예정이다.

청주복지재단은 이·통장 및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주택관리사, 편의점 등 협력 주민주체를 개발할 방침이다.

마을복지사를 사례 발굴 요원으로 교육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실시한 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동 대책을 통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① (최중증 발달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24.6월)
- ② (돌봄서비스) 주간활동 하루 8시간 지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행(23.4월)
- ③ (소득보장) 장애인연금(38.8 → 40.2만 원/월), 장애수당(4 → 6만 원/월) 인상
- ④ (조기개입) 발달장애 정밀검사(70 → 80%), 발달재활(6.9 → 7.9만 명) 확대
- ⑤ (자립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확대(200명 → 400명)
- ⑥ (가족지원) 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확대(2.5 → 3만 명)
- ⑦ (예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2. 2,080억 원 → '23. 정부안 2,528억 원, 21.5%(447억 원) 증가

① 최중증 발달장애

(최중증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특화 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24.6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 평가(23)를 거쳐 확산 추진

*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지원 등 제공

(활동지원 강화)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24시간 지원 강화('22. 792명), 활동지원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 확대

* (가산급여, 시간당) '22. 4천명, 2천원 → '23. 6천명, 3천원

(최중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AI, 야간순회방문 등 국고보완서비스 개발을 통한 응급안전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 대상 1인 집중서비스 지원 활성화

* (가산단가, 시간당) '22. +7,400원 → '23. +7,780원(예산편성단가의 150%)

(최중증 특화 1:1 주간활동) 최중증 1:1 낮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사업(광주유합돌봄, 서울철린지)을 평가하여 최중증 주간활동서비스 도입방안 마련(23)

(AI 돌봄 지원) 도전적 행동 중재를 위한 AI 조기개입 및 치료효과 평가 연구('22~'24, 서울대병원) 결과를 토대로 AI 모델 기반 서비스 제공 추진('25~)

② 돌봄서비스

(낮시간 보장) 단축형을 폐지하고, 기본형(월 132시간)·확장형(월 176시간)으로 개편(23)하여 일 8시간 보장(확장형) 등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또한, 내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종사자 1인당 서비스 지원대상을 최대 4인에서 3인으로 축소한다('22. 7월)

(표1) (서비스 고도화) 제공기관('22. 458개소) 평가 체계 마련, 연령(고령)·지역(농어촌)·이용시간(야간, 주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23~)

(주간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서비스제공 기준 표준운영 방안 마련 및 발달장애 특화 모형개발·확산 추진, 기능보강비 지속 지원('23. 134개소)

(장애인복지관 역할 강화) 개별 프로그램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중심으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주요기능, 조직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23)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22. 32개 → '23. 53개), 문해교육 온라인

*주요 달라지는 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23) 및 시행('24.6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평가('23) 및 확산('24)



4천명 / 2천원 → 6천명 / 3천원

최중증 가산수당

AI 응급안전·야간순회 방문 등 보완서비스 개발('23)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7.5시간 → 8시간(확장형)

활동지원급여 차감 폐지·축소(기본형 폐지, 확장형 △ 56 → △ 22시간)

|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지원('23.4월, 신규, 55억원)

| 활동지원서비스



13만명 → 14만명

산정특례 유지('22.7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 추가 지원('23)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월 38.8만원 → 월 40.2만원

| 장애수당



월 4만원 → 월 6만원

| 재정지원 일자리



2.8만개 → 3만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2024년부터 전국 확대

발달장애인 연금 월 38.8만→40.2만원, 수당 4만→6만원으로 ↑

콘텐츠 개발·보급('22. 2종 → '23. 4종(누적)) (긴급돌봄 지원)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3.4월, 55억원)

(활동지원 확대) 지원대상 1만명 확대('22. 13만명 → '23. 14만명), 산정특례 지속 지원('22.7월)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23~)

* '21년말 기준 산정특례 대상(14,261명) 중 발달장애인 56.3%(8,029명)이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2,720명) 중 발달장애인 7.8%(212명) 해당

또한, 도서지역·감염병 사유('22.2월, 342명)의 취약가구(독거, 다장애인가구), 시간(심야), 대상(희귀질환 등) 등을 고려한 가족을 통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방안 검토한다.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 심화교육과정 도입 등 전문성 강화('23~)

③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3.7% 인상('22. 월 387,500원 → '23. 월 401,950원)

(장애수당) 2만원(시설 1만원) 인상하여 최대 월 6만원(시설 월 3만원) 지원 및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통해 수급 재산 기준 완화(23)

(직무 다양화)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22. 2.8만개 → '23. 3만개, ↑2천개) 및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추진

(훈련 특화) 학령기·입직기 발달장애인의 기초직무역량 향상 지원 및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특화 디지털 기초역량 과정 신설(23)

(고용지원)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산, 공공부문 고용의무('22~'23. 3.6%) 이행 독려 및 근로지원인('23. 1만명)·직무지원인 배치

④ 조기개입

(정밀검사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

상 확대('22. 건보하위 70% → '23. 80%)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발달재활 지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언어·미술 등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만명) 및 바우처 단가(+3만원) 인상

* '22. 6.9만명, 22만원/월 → '23. 7.9만명, 25만원/월

(지원연령 확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이 만 6세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

(가격공시제 강화) 부모부담 경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격공시제 관리 및 위반시설 조치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및 이용실태 전반 조사 병행(23)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 마련·실시('24), 종사자 보수교육 체계 평가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23)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장애센터 권역별 확충 지속('22. 10개소 → '23. 12개소)

(어린이재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순차적 개원*,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23.12월)을 통한 소아재활 치료수가 개선

* 건립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및 지정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선정 완료('18~'21)

** '22. 2개소 → '25. 13개소 개원(운영) 예정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봄비를 통한 돌봄 지원시간 지속 확대('22. 연 840시간(월 70시간) → '22.7월 연 960시간(월 80시간))

(방과후활동) 방과후 낮시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방과후 활동 제공시간(현재 월44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

⑤ 자립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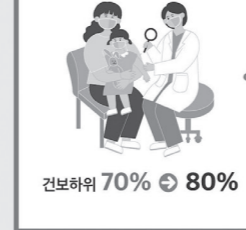
(자립지원) 시설·재가 장애인, 집중돌봄 대상 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모형 개발, 시범사업('22~'24) 평가 후 본사업 추진한다.

* '22. 200명 → '23. 400명(활동지원시간 월 60 → 80시간 지원)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장애아 양육지원 행동발달장애센터



건보하위 70% → 80%



6.9만명 / 월 22만원 → 7.9만명 / 월 25만원



10개소 → 12개소



월 70시간(연 840시간) → 월 80시간(연 960시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200명 → 400명

| 공공후견 지원



1,263명 / 월 15만원 → 1,563명 / 월 20만원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120명('22~'23), 본사업('2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부모상담



567명 → 1천명

| 부모교육



1.3만명 → 1.5만명

| 가족휴식



1.1만명 → 1.4만명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5억원 → 10억원

⑦ 지원 인프라 강화

(전수조사)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사각지대 발굴 등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 실시('22.6월~'12월, 5억원)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모형안 마련 중('22.6월~'12월)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실태조사 모형을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적용('23. 10억원)하고, 지자체 전수조사 추진('24)한다.

(권역별 설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가족지원 등 법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 증대에 대응한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장애아동지원기능 강화) 체계적인 조기 발견·개입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서울 서초, 부산)의 장애아동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지원('23~)

* '22~'24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25 본사업 전환 시 전국 확대(17개소)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21.8월~)를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지원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 및 자립준비·정착 과정 지원을 위해 권역 단위의 '지역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 '22~'24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25 본사업 전환 시 전국 확대(17개소)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동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복지포럼

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요양원과 존엄한 삶의 의미



김 성 식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충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지 어느덧 100일이 되었다. 공직생활로 바쁘게 지냈던 업무과는 다른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살아오신 분들과 함께한 생활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남다른 생활이었던 것 같다.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위기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함께 해왔다.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의 어

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켜온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전국의 246개 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상 속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부, 안전, 안심'의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안녕 충북! 자원봉사 릴레이, 시장에 가GO' 골목에 가GO, '안녕 충북! 나눔 마을 만들기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다중 이용 시설과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방역 등의 활동과 생산적 일손봉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희망을 전달해 왔으며, 2017년 제천화재 참사와 수해복구, 지난 10월의 괴산 유기농산업 엑스포 국제행사 등 자원봉사가 없이 어느 하나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생각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달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많은 국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정한 '자원봉사의 날'이다.

2005년도에 시행되어 올해로 17번째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았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도 12월 7일 '충청북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80여명의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격려와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희망과 감동을 나누며 행사장을 사랑과 나눔의 공간으로 만들어 훈훈함을 더해 올 겨울 추위를 녹이는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는 일부만 참석하는 소규모로, 제작년에는 행사 자체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보여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성과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지면으로나마 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자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몇 가지 간절한 바람을 제언해 본다.

먼저,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이 오래 지속되고,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둘째, 현재 충북도민의 26%인 414,936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적잖은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으나, 더 많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자원봉사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생각한다.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역사와 궤를 같이하므로 초고령사회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면 한다.

마지막으로 봉사자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틈새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개발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제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수 학자들의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우울감 감소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사망위험률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만병 통치약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충북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로 나눔이 함께하는 충북 만들기에 동참해 코로나19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또한 도내 자원봉사활동의 거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충북민의 경쟁력 있는 사업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서나 따뜻한 정(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봉사를 위해 보낸 삶만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한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살려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고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전 창 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요양원장

살아온 지난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면서 가정 내에서 각종 질병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때 각 언론에서 요양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확대하는 모습을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며 마치 모든 요양원이 그러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들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발맞추어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에서는 10년 전 오창에 집합 건물속 휴먼케어 요양원을 설치해 "존엄의 케어, 좋은돌봄"이라는 가치 아래 1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집합건물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잔존 신체 능력, 인지능력의 퇴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며 외부 활동을 강화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 중지, 면회금지, 외출금지, 외박금지 등 어르신들의 삶은 '새장 속의 새로 전락하여 그저 숨만 쉬고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먼케어에서는 "존엄의 케어, 좋은돌봄"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요양원 모델을 만들기로 하

고 내수를 구성리에 땅을 매입하고 2022년 5월 지상 3층의 요양원을 건립하게 됐다. 그동안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껴왔던 하드웨어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 편의성, 이동 편의성 등을 최대한 살린 요양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무료한 일상에서, 답답한 생활실에서 바깥세상을 동경하는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휴식을 받고 싶으면 휴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으로 거듭나고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잔디정원과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농원 오마쭈'를 건립하여 직접 화초를 가꾸거나 감상 할수 있는 화원을 만들었고 향유 텃밭을 조성하여 각종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의 기쁨도 같이 누리려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으로 남아있다.

요양원에 입소한다면 불효자니,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나니, 죽을 때가 다 돼서 가는 곳이라는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집에서는 더 이상 케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비로소 요양원 찾는 많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을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요양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요양원의 입소는 조금은 더 건강 상태에서, 조금은 더 인지가 좋은 상태에서 입소를 하게 된다면 요양원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만끽할 수 있다.

요양원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의 삶도 어느 곳에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 하는 과정이다.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받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갈수록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보다 마트나 버스, 병원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노인들이 대다수이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시대의 흐름이다.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이 든다. 당면한 문제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늙고 병들어가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

로템청소년학교를 아시나요?



강 옥
로템청소년학교 교육3팀 팀장

들어보셨나요? 부산 여중생 폭행, 인천 초등학교 살인, 대구 여중생 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렌트카 사망사고, 명문고 시험지 유출사건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사건? 로템청소년학교(6호 시설)는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 즉 아동복지시설 같은 민간 기관에 감호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모여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생활을 하는 곳이다. 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7호 처분이 정신질환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때 내리지는 예외적인 처분을 고려하면,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의 바로 아래 단계 처분이다.

필자는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해 벌써 만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처음 시설에 입사하여 아동들을 보았을 때 몸에 색색별로 문신이 가득했고 덩치도 저와 비슷하여 "내가 일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아동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등 첫날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대부분의 아동들은 나에게 살갑게 다가와 주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근무를 하며 앞으로도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려 한다.

아동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로템청소년학교에서는 3대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바이올린)과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힐링캠프), 운동치료 프로그램(로템리크)이다.

첫 번째 음악치료 프로그램(바이올린)은 음악 또는 음악적 요소인 멜로디, 화성, 리듬 등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입소한 아동들뿐만 아니라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

한 악기(바이올린)를 다루면서 함께 배우고 익히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두 번째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힐링캠프)이다. 현재 입소한 아동 중 1/3은 가족관계가 좋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님,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막막해지는 부모님들과의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여 가족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 교우관계 및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운동치료 프로그램(로템리크)이다.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며, 로템청소년학교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축구라는 체육활동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과 인성, 협동심 강화를 유도하고 신체 발달 및 기성향상, 스트레스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남/녀 모든 선생님들이 아동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흥미진진한 진행을 통해 항상 기다리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입소한 아동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고자 모든 선생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주입식 이해와 권위를 앞세운 지도·교육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의 치료적 접근을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과 변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임을 믿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만12세 또는 13세로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커지고 있다. 처벌강화를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소년인 처한 가정환경이 소년범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스스로가 선택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 선택으로 6호라는 처분을 받아 시설로 오게 된 아동들이지만 더 이상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도움이 손길을 뻗어야 할 때이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딸의 법률상식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부모의 책임 여부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제 아들이 얼마 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었고, 지금까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우선 아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책임능력이 있는지가

관련입니다. 책임능력이란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으로(민법 제753조) 책임능력 유무는 연령이나 학식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대체로 만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만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아들에게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

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의 개별적·구체적 감독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의 구체적 태도를 살펴보면 부모와 같이 사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고 무사고경력인 경우에는 부모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아들에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아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삼성공정학재단] 삼성공정학재단 SOS 꿈나눔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런 가정 경제의 위기, 학교 부적응 등 긴급한 어려움에 처하여 긴급하게 장학금 및 멘토링이 필요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 지원내용: 장학금 300만원(4회로 나누어 지급)

※ SOS 꿈나눔 장학금의 장학금은 재단의 선배 장학생들이 매월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2023.1.16(월) 18시
- 선정결과: 2023년 1월 중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sdream.or.kr/)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문의: 02) 727-5400, 5401

[푸르메재단] 2023 메가스터디 비장애형제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12개월)
- 신청기간: ~ 2023.1.5.(목)
- 지원대상: 장애어린이(만18세 이하)를 형제로 둔 만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내용: 고등학생-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 온라인 전과목 무료 수강권(60만 원 상당+교재캐쉬 20만원), 중학생-엠베스트(www.mbest.co.kr) 온라인 전과목 무료 수강권(120만 원 상당), 공통-선정된 중·고등학생 전원 메가스터디·엠베스트 전용 태블릿 무상 제공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인원: 75명(중등 35명, 고등 40명)
- 신청방법: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담당자 이메일 접수)
- 선정발표: 2023년 1월 3주차 예정
-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s://purme.org/) 참고
- 문의: 02-6395-7018

[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접수

-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4년 4월
- 사업대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정
- 신청기준: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항목: 주거비(최대 300만원), 생활비(최대 150만원), 교육 양육비(최대 300만

원), 의료비(최대 500만원) 등

- 신청방법: 거주지역 내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
- 신청기관: 굿네이버스 사업장,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 문의: 1600-2062
- 참고: http://www.shinhan-hope.com

[코아드] 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함께하는 사랑발]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기간: 상시진행
- 지원대상: 두리모, 회귀난치, 화상, 긴급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 신청자격: 시군구 등 지역사회의 위기 가정 담당자(개인신청불가)
- 신청방법: 위기가정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대상선정: 선정 후 한달 이내에 신청기관(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 지원방안: 일시 지원 및 정기 결연,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방송프로그램 연계
- 문의: 02-2612-4400
- 참고: https://www.withgo.or.kr/

[기아대책] 기대플러스기아대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희망동지'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및 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례관리 가능한 사회복지 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실 등)
- 지원기준: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생계비(최대 600만원), 의료비(최대 1,000만원), 주거비(최대 500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심리정서치료비(최대 10회 기준)

- 문의: 02-544-9544
- 참고: https://hope.kfhi.or.kr/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l.org/) 접속 후 신청서 등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모집기간: 상시접수(해당 지역별 사업 기관 리스트 참고)
- 문의: 070-7462-9135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 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및 스마일봉사단, 환경정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우리회(회장 김명동) 및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은 지난 11월 27일 단양군 잔도길

과사인암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우리회와 스마일봉사단은 각 2010년, 201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해 오고있다. 김명동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며 "이처럼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경험은 나눔, 일지라는 이름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5일(월) ~ 12월 28일(수)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모집분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2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담 및 문의 ☎ 1544-3388

복지/만/평

유산

이창신 www.bokmani.com

노벨이 발명한 다이내마이트는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賞)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내 유산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으로 써달라...

자원 봉사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보조 관리센터: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533-1177

▶ 아동방과후 교실 관리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236-3600

▶ 무료급식지원 및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855-3000

▶ 반찬배달 봉사 관리센터: 음성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883-2900

▶ 마을신문 기지단 모집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266-4761

▶ 초중등 학습 멘토링 관리센터: 가정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231-9681

▶ 사설봉사 관리센터: 진천시니어클럽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532-3104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843-1432

▶ 이마음 봉사 관리센터: 9988요양원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277-9988

▶ 행정 업무보조 관리센터: 한국농어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활동기간: 22.12.1 ~ 23.1.31 전화번호: 043-233-561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